

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꽤나 좋은 대체품이 될 수 있다. 월마트가 대단한 점은 스토어 안에 모든 종류의 상품들을 있는 음식, 옷, 전자제품, 사무용품 들을 일반 대중들이 아주 값 싸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월마트에서 \$119.99달러에 살 수 있는 피아노 건반은 미국인의 최저임금 기준 4 시간만 일하면 구매할 수 있다. 베토벤이 사용하던 정도의 좋은 건반은 물론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 대중들이 쓰기에는 꽤나 쓸 만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들이 집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 유튜브와 같은 교육용 비디오와 만나게 될 때 누구나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피아노를 배우고 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또한, 이미 녹음되어 있는 수많은 음악은 누구에게나 최고의 공연을 제공하고, 스트리밍 서비스 역시 대중들이 거의 공짜에 가까운 돈으로 거의 무제한으로 훌륭한 음악들을 즐길 수 있게 한다.

앞서 언급한 위인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월마트의 가장 대단한 점은, 매장 바닥부터 천장까지 가득 찬 이러한 상품들이 소수의 엘리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이루어진 노동의 결과를 맛보기 위해 특정 당원의 당원일 필요도 없을 뿐 더러 작위를 받은 영주나, 황제, 전제군주, 철권군주 등의 신분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 평소 일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가치를 창조하며 벌게 되는 소득으로 단지 몇 달러만 있으면 된다.

만약 당신이 월마트가 조금 거추장스럽거나 촌스럽다고 생각한다면? 굳이 쇼핑하러 가지 않으면 된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더 좋은 퀄리티의 상품을 사는 것은 온전한 소비자의 자유이다. 좋아하는 프리미엄 스토어가 월마트, 타겟, 그리고 아마존 때문에 파산하려 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상업사회에서는 대중이 버는 돈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생산해야 하고, 언제 어떻게 누구를 위해 생산해야 하는지에 대해 "투표" 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당신은 그 투표에서 지고 있는 것이다. 또다른 말로는 더 많은 사람들은 힘들게 번 돈을 월마트에 "투표"권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도 때로는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내릴까? 맞다.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로 종종 그렇다. 다른 사람들이 자유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해서 권력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대 사회의 풍요로움을 만들어 낸 것은 바로 권력이 아니라 자유다. 그 말은 바로 의미 있는 관계, 경험으로 풍요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다. 잔다르크도 분명 이 점을 감사하게 여겼을 것이다.

번역: 이현중

출처: <https://www.independent.org/news/article.asp?id=14535>